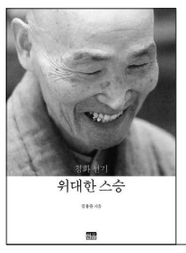
“승가는 화합”…청화 대종사 사상 망라



청화 전기
위대한 스승
김용출 지음
한울
2만9800원

일종식 · 장좌불와로 평생 수행
한국불교 대표하는 선승 평가
여러 수행법 회통 · 공존 추구
음성 · 영상 · 법문집 등 정리



2000년 3월 곡성 성륜사 조선당에서 〈현대불교〉와 인터뷰한 청화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하루 한 끼 일종식과 눕지 않는 장좌불와를 실천해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꼽히는 청화 대종사(1924~2003). 스님이 이 같은 용맹정진에 나선 건 2600년 전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떠나 6년간 극한의 고행을 한 데서 비롯됐다. 고타마가 무상대도를 얻지 못한 채 고행림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그린 회화 〈출산석가도〉를 1989년 남종화의 거장 아산 조방원에게 받은 청화 스님이었다.

청화 스님은 그때부터 거처하는 방 벽에 〈출산석가도〉를 붙여놓고 부처의 6년 고행을, 목숨을 내건 구도 정신을 되새기곤 했다. 석가모니의 정신으로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3년 4월, 스님은 횡성 배향산 토굴에 조방원의 그림 〈출산석가도〉와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 사본을 그대로 놔둔 채 옷가지만 챙겨 나왔다. 상좌들은 스님이 오랫동안 주석한 곡성 성륜사로 모시려 했지만 정작 스님은 고향 무안 혜운사로 걸음을 옮겼다.

청화 스님은 2003년 6월 서울 도봉산 광륜사에서 열린 보살수계식에 참석해 마지막 대중 법문을 했다.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며 곡성 성륜사로 돌아왔다.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준비한 청화 스님. 상좌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열반 이후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고 누누이 당부했다.

“올 때도 빈손이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을 호화롭게 할 필요가 없네. 그냥 거적에 말아서 일반 화장터에서 태운 뒤에 뿌려주소. 그렇게 해서 장례비용이 다소 남으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해주소.”

청화 스님은 그해 11월 12일 오후 10시 30분 성륜사 조선당에서 도일 스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납 80세, 법랍 56세로 눈을 감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대중과 화합 잘하고 살아가시게. 승가란 화합이네.”

청화 대종사 탄생 100주년과 열반 20년을 맞이해 스님의 행장과 사상을 망라한 〈청화 전기: 위대한 스승〉. 청화 스님이 ‘위대한 스승’으로 꼽히는 이유는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이면서 정통 불법의 부흥을 위해 일생을 바쳤기 때문이다.



청화 스님 창건사찰인 곡성 성륜사 조선당 앞에서. 현대불교 자료사진

스님은 정통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행법의 회통과 공존을 추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염불선의 대중화를 시도해 큰 주목을 끌었다. 우주만유는 진여불성뿐이고 마음이 곧 부처라는 반야의 지혜를 여의지 않고 수행한다면 모든 수행법이 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화선뿐만 아니라 염불선, 묵조선 등 여러 수행법의 회통과 공존 가능성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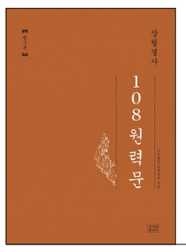
다만 이 과정에서 간화선만을 유일한 수행법으로 여기던 조계종의 풍토 속에서 한때 외도로 치부돼 엄청난 비판과 핍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숱한 가시밭길 속에서도 스님이 염불선을 포기하지 않은 건 근기의 차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 더 많은 대중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을 역임한 지선 스님은 “큰스님은 제가 보아온 수많은 수행자들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열심히 수행했던 스님이었다”며 “하루 한 끼 공양으로 법체를 유지하시며 장좌불와, 묵언으로 참선 정진하셔 전형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회고한다.

이 책은 청화 스님의 음성과 영상, 녹취록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존된 800여 개 법문을 비롯해 〈정통선의 향훈〉 〈원통불법의 요체〉 〈안심법문〉 등 법문서와 〈정토삼부경〉 〈육조단경〉 등의 주역서, 스님의 은사인 금타 선사의 유작 〈금강심론〉, 각종 저술 등 수많은 자료 열람과 주요 도반 및 상좌와의 인터뷰를 망라해 발간했다.

2003년 논픽션 〈최옥란 평전〉과 2006년 〈독일 아리랑〉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저자는 논픽션그룹 ‘실록’ 멤버들과 함께 〈역사논픽션 3 · 1운동〉을 집필 중이던 2018년 두 권의 책을 통해 청화 스님을 처음 만났다. 스님의 행장뿐만 아니라 원통불교 사상과 염불선 등에 매료된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5년 동안 읽고 듣고 많은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이를 통해 스님의 탄생부터 출가, 치열한 구도와 만행, 사상의 형성과 대중 법문, 태안사 및 성륜사에서의 하화중생, 6년간 미국 전도, 생애 마지막 시기와 열반 모습 등 청화 스님의 일대기를 과장이나 축소 없이 논픽션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한 자씩 간절한 발원을 필사하다



상월결사 108 원력문 필사본
사단법인 상월결사 엮음
조계종출판사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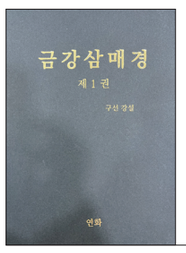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부처님 발자취 따라 인도와 네팔 1167km를 오직 도보로 43일 동안 순례한 위대한 여정이 있었다. 부처님이 길에서 먹고 자며 전법을 위해 걸어서 인도 전역을 다녔던 것처럼, 상월결사 또한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간절한 원을 세우고 그 실천행을 위해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간절한 원은 뚜렷한 목표의식과 실천행을 담은 ‘상월결사 108 원력문’을 탄생시켰다.

우리들이 목표로 정해 가고자 하는 행선지가 원(願)이라면, 가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바로 역(力)이다. 이를 합쳐 ‘원력’이라고 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원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실천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상월결사 108원력문’이 ‘발원문’이 아니라 ‘원력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월결사 108 원력문 필사본〉은 불교 신행 과정인 ‘신해행증’을 마음에 새기며 108개의 원력문을 총 여덟 번 필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페이지가 180도로 활짝 펼쳐지게 제작돼 어떤 페이지에도 글씨 쓰는 것이 편하도록 제작됐다. 뒤표지에 수록된 동영상 QR 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활용해 108배 및 필사를 할 수도 있다.

108개 원력을 눈으로 먼저 읽고, 소리 내어 독송하고, 마음속으로 음미하며 손으로 써 내려보자. 손에 힘을 주어 꾹꾹 눌러 쓰는 동안, 원력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실천의 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임은호 기자

본성 생겨난 원인 일목요연하게



금강삼매경 강설
구선 스님 강설
도서출판 연화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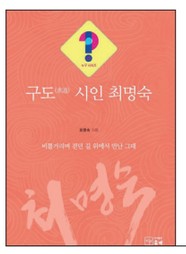
〈금강삼매경〉은 부처님께서 법화삼부경을 설법하기 전에 먼저 설한 것이다. 금강삼매는 금강부동삼매로, 대적정의 적멸상에 머물러서 모든 생멸심을 분리시킨 상태다. 금강삼매에 들어가 있던 부처님께서 다시 깨어나 본성의 적멸상(寂滅相)과 적정상(寂靜相)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경전이 시작된다.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 구선 스님은 최근 출간한 〈금강삼매경 강설〉에서 본성이 생겨난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두 권으로 출간됐으며 1권은 ‘금강삼매경 서품’ ‘무상법품’ ‘무생행품’ ‘본각리품’ ‘입실제품1’ 등으로, 2권은 ‘금강삼매경 입실제품2’ ‘진성공품’ ‘여래장품’ ‘총지품’ 등으로 구성됐다. 세 종류 연기가 시작된 원인과 절차, 즉 본원본제와 본연, 생멸문과 진여문이 생겨난 과정에 대해 말하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구선 스님은 “여래장연기의 원인과 절차에 대해 이토록 일목요연하게 말한 경전은 〈금강삼매경〉이 유일하다”면서 “〈금강삼매경〉으로 인해 본원본제의 일과 일심법계의 일, 여래장연기, 생명연기, 진여연기의 모든 과정이 정리되고 불의 종지가 세워진다”고 설명했다.

1983년 출가한 구선 스님은 진리와 깨달음을 다양한 사상서에 담아 출간했다. 이를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현재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이며 서울에서 선나명상원을 운영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비틀거리던 길 위에서 만난 그대



구도 시인 최명숙
최명숙 지음
도서출판 솟대
1만2000원

불자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아래 최명숙 대표가 자전 에세이 〈구도(求道) 시인 최명숙〉을 발간했다. 이 책은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방귀희)가 펴낸 2023 ‘장애예술인 스토리텔링 북’ 〈누구시리즈 23〉으로 주인공 뇌성마비장애인 시인 최명숙 대표의 이야기가 담겼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학창시절, 직장생활, 불교와의 인연, 작가활동 등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희망차게 일궈온 최명숙 대표의 60여 년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1962년 10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최 대표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시골에서 구삭동이 조산과 난산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뇌성마비장애를 갖게 됐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등에 업혀 듣던 어머니의 기도처럼 잘 자라, 보고 느끼고 혹은 늦은 깨달음을 적어가는 시인이 됐다. 시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다 보니 다른 삶의 길도 열려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25년 근무하였고, 현재는 장애인의 불교와 문화예술이 있는 모임 보리수아래 대표, 도서출판 도반의 편집주간으로 있다.

최 대표는 1992년 〈시와 비평〉 신인상을 받은 이후 2002년 구상솟대문학상, 2018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다. 2021년 낸 시집 〈심검당 살구꽃〉은 한국불교출판협회의 올해의 10대 불서로 선정됐다. 임은호 기자

우리가 꼭 가야 할 성지 베스트 8
삶이 고(苦)일 때 붓다, 직설과 미술

250여 컷 명작 불교미술로 떠나는 ‘붓다의 생애’
성지의 현장감·풍부한 해설로
순례의 감동이 두 배로 다가온다!



탄생·사유·수행·깨침·전법·열반…
깨달음의 여정을 생생한 체험으로 따라가면
비로소 내 안에 갇혔던 괴로움이 사그라진다!

탄생·사유·수행·깨침·전법·열반 등 붓다의 생애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가 250여 컷의 명작 불교미술과 함께 색다른 감동으로 밀려온다. 성지의 현장감에 깊고 풍부한 해설이 더해져 성지순례의 감동을 두 배로 되살렸다. ‘존재의 고통’을 해결한 붓다의 생애를 생생한 체험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갇혀 있던 괴로움도 사라진다.

“붓다의 생애는 ‘고(苦)’라는 실존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여정이다.
성지 속 붓다의 족적을 따라가며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자.”
- 본문 중에서

청화 강소연 지음
432쪽 |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